

소비녀들에게

성재덕(Pierre Singer) 신부 서간 모음집
서울성가소비녀회 편
서울성가소비녀회

일러두기

이 책은 성재덕(pierre Singer) 신부님께서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의 편지에 회답하신 서간을 모아 엮었다. 1957년 11월 21일 고 시몬 수녀님께서 제2대 원장이 되신 다음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역대 원장(총원장)님들께 보내신 편지가 대부분이고 김 돌로로사 수녀님께서 수련장이셨을 때와 그 외 몇 분의 수녀님께 쓰신 편지이다.

편지 원본을 거의 그대로 실었으나 원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법 표준에 맞추어 교정하였고 가끔 생략된 주어, 서술어, 동사를 표기하기도 하였다.

서간들 대부분이 봉투 없이 속지만으로 보관된 상태였고 연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대를 측정하여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연대 측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서간집의 특징은 소비녀의 사도적 영성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창설자 신부님의 권고라고 볼 수 있다. 이 서간집은 성 신부님의 성가 소비녀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 창립자로서 소비녀 정신에 대한 권고, 소비녀회의 사도직 방향에 대한 지시, 수련소에 대한 권고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어느 자료집에서도 볼 수 없는 창립자로서의 간절하고도 긴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 책은 성가 소비녀회의 창립 정신을 되찾아 수도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하나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본다.

이 원본은 성 신부님께서 1950년 4월 20일, 성가소비녀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현재 성 신부님께서 직접 쓰신 친필이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천주께서 이것을 원하시도다

- 1 원망없이 즉시 순명하라.
- 2 부지런하게 일하라.
- 3 억지로 말고 관심으로 침묵하라.
- 4 보통으로 몸을 단정히 가지고 온화한 얼굴을 가지라.
- 5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도와줄 기회를 피하지 마라.
- 6 마음을 흔탁케하고 시간을 헛되이 쓰는 온갖 생각을 쫓아내라.
- 7 무슨 과실이 있을 때마다 즉시 천주께로 달아들라.

기뻐하라

- 1 만일 너를 몰라주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도 기뻐해라.
- 2 만일 네 정신과 네 육신이 못 생겨도 기뻐해라.
- 3 만일 다른 사람들이 네 뜻을 반대해도 기뻐해라.

- 4 만일 네게 천한 일을 시켜도 기뻐해라.
 - 5 너를 쓰지 않아도 기뻐해라.
 - 6 만일 네 뜻을 정하지 않아도 기뻐해라.
 - 7 만일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기뻐해라.
 - 8 만일 너를 말쑥으로 두어도 기뻐해라.
 - 9 만일 너를 한번도 찬양 안해도 기뻐해라. (이 자료가 발견되기 전 기뻐하라 소비녀에서는 '너를 한번도 참여시키지 않아도 기뻐하라'로 되어 있다.)
 - 10 만일 너를 모든 사람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 하여도 기뻐해라.
- 성가 수녀원에서

1950년 4월 20일

아멘!

시몬 소비녀가 천주 안배로써 큰 책임을 받게 되었네요. 축하보다도 그 책임을 잘 행하기 위하여 예수 마리아 요셉께 기구합니다.

잘하신다면 당신 때문에 또 수많은 영혼이 천당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잘못한다면 오히려...

잘하려면 돈보다 더 주의 성총과, 특히 소비녀들의 거룩한 생활을 믿으시오. 소비녀들이 일 많이 하려면 먼저 성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성녀가 될 마음이 없다면 진중한 일이 없고 - 주의 강복을 받지 못하고 서로 시비 생길 것이고 규칙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원장으로서의 당신 제일 큰 본분은 그것입니다. - 그것을 위하여 - 주의하시오. 당신이 먼저 바른 표양을 내시고 성교규칙, 성가규칙을 온전히 잘 지키시오. 분원 분원마다 다니실 때에 특히 소비녀들이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살펴보고 주의하시오. 소비녀들이 마음속부터 열심하면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성가의 소비녀에 대한 참된 마음이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오. 나 오늘 그런 말씀만 올려 드립니다. 다른 말은 다 소용없습니다. 12월 4일 시몬 소비녀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강복을 받으시도록 성모님께 성 요셉께 기구합니다.

1957년 11월 21일

고 시몬 수녀가 2대 원장으로 피선되었을 때 쓰신 편지

아멘!

보내 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나는 여러 가지 문서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 분원(유치원, 문답학교, 고아원, 기타)의 수입과 지출이 대개 얼마인지 알려주십시오. 파리 주교가 특히 이것을 알고 싶어하십니다.

수입 중에 각 주교가 주시는 것까지 알려 주시오. 빌건데 원 주교쥘님이 당진-합덕을 위하여 주신 것을 알려주시오. 당신이 보고하실 때에 이것을 기록해 두셨으니 우리 역시 보고할 때에 맞아야 됩니다.

서로 기구합시다. 모든 소비녀들에게 문안을 드려주시고 또 기구를 부탁드립니다.

제2대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보내신 편지

아멘!

경애하올 高 수녀님! 아멘.

지금 알렐루야 하는 때가 아니라도 알렐루야! 알렐루야!

천주께서 보내 주시는 돈은 참으로 천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시오. 또 항상 가난한 정신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함부로 쓰지 마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참으로 도적질 하는 것입니다 (주교님께 감사편지 하시오).

오늘 시험문제와 답 보냅니다. 여러 소비녀들에게 알려주시오. 내가 모든 소비녀들 각자에게 대답할 수 없으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파리 주교한테 신청하려면 내가 3월 16일

가랑 서울 올라가니까 미리 다 준비하시오. 각 분원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아이들 - 유치원, 고아원, 문답학교, 교리학교 아이들까지 인원수를 알려주시오. 감사합니다. 신청용지 없습니까? 서로 기구합시다.

연대미상(1958-1962년)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보내신 편지

아멘!

편지 받고 즉시 답장합니다. 포 신부님께 5000원 드리라고 명했으니 관계한 사람을 보내시고 돈은 가지십시오.

갑바를 하기로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가 소비녀들이 일 잘 하는지 잘못 하는지 특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찬미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원장 수녀님께 두 가지 편지 보내드립니다. 만일 천주께서 강복 주시면 성가회 위하여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인쇄한 것) 파리 주교님한테 보낼 것입니다. 잘 되면 삼, 사천 불 얻을 수 있겠습니다. 뒤에 당신이 사인(도장, 성가회 도장하고)한 다음에, 주교님께 다시 사인 받으러 주교 댁에 가시오. 그 다음 즉시 파리 주교님께 보내시오. 이 속에 주교님 위하여 봉투를 기록하였습니다. 둘째는 내가 기록한 것인데 디프스드쩨 이 편지는 로마 교황청에 보낼 것입니다. 잘 되면 이, 삼만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 ◎표 있는 곳에 역시 또 당신 도장 찍으시오. 또 이것도 주교님께 갖다 드리시오. 또 이것은 그냥 주교님께 맡기시오. 주교님이 또 자기 도장을 찍으신 다음에 직접 교황사절에 갖다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교님께서, 직접 갖다 드리라고 하시면 물론 가져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착한 소비녀들 만들려고 항상 많이 기구하며 노력하시오. 다음에 피정 때문에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기구합시다.

아멘!

그저께 당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소비녀들이 열심히 피정 잘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뻐합니다.

편지와 함께 보내드리는 것은

1. 주교님의 성명과 주소(4장)를 기록하였으니 물건을 보내실 때에 그것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한국 우체국 때문에) 성가회 주소를 작게 기록하십시오.
2. 사진 세 장과(한 장은 바리스씨에게 보내겠습니다. 사진 더 많이 보내셨다면 좋았을 텐데...) 주교님께 우표, 인형, 그림, 기타 여러 가지 보내시면 좋습니다. 걱정 마시오. 손해가 아닙니다.

소비녀들 위하여 가끔 기구하니 소비녀들도 성 신부 위하여 가끔 기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금방 안동에서 오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성가 수녀 두 분 만났습니다.

여기 와 보니 불란서에서 영수증이 다 와 있습니다.

빠리 한국 대사의 도장까지 다 있으니 부산 세관에서 아마 지금쯤 다 잘 되고 있을 것입니
다.

바빠서 그만 쓰겠습니다.

아이고 답습니다!

기다렸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퀘짜 15개

우유통 2,880개

아멘 알렐루야!

어제 高 시몬 소비녀 원장 편지 잘 받았습니다. 부활 축하 말씀 많이 감사했습니다.

약현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천주께 감사합니다.

규칙 제137조: 성가 소비녀들은 어떠한 자선사업에 착수하든지 만일 주교님의 명령으로 타
인의 손에 넘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동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시킬 만큼 준비해 놓아야 합니
다.

이 규칙대로 큰 마음 가지고 순명합시다. 천주 대전에 공로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표양됩니다.

절대로 섭섭히 생각지 마시오.1) 더구나 본시 약현 성당2)에는 옛날부터 바오로 수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잡아서 참 내 맘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잘 하시오.

또 천주께서 우리 성가회에 큰 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고통 있을 때에, 특히 그때에 웃으시고 기쁨을 내 주시오. 이렇게 함으로
써 다른 수녀와 함께,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 주시오. 혹은 성가의 본
사업만 시작하십시오.

주교님은 천주 대리자이시니까 항상 겸손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좋지 못한 생각
을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겸손 덕행의 기회로 삼으며 우리 성가회가 좀 더 잘 하도록 더욱
주의하십시오. 천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천주 평화 중에 항상 잘 마무리시오.

기구합니다.

1959년경 논산에서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金 바오리나 보냅니다. 이 처녀는 二十二세이며 논산군 노성면에 살고 있습니다. 영세
받은 지는 五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외인입니다. 부모가 외인하고 혼인하라고 했지만
싫어했습니다. 공소 발전을 위하여 이 아이를 가르치느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에
게 수녀원에 들어갈 마음이 있으며, 또 나도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
모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기 위하여 한 일, 이 년 동안 착한 교우 집에 식모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찾을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논산 성당을 짓는 중입니다. 인민군이 왔을 때에 우리 十四처 성로신공 중에 三개(一, 八, 九)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십사처는 백동 성당에 있는 십사처와 똑같은 것입니다. 서울에서 수녀 중에 혹 아는 사람 중에 그 세 가지 그림을 그릴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답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강복을 받으시오. 모든 소비녀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960년 논산에서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마리아, 요셉!

드디어 손님들이 다 나가고 조용해서 성가 소비녀들에게 원장 수녀와 모든 분원장 수녀와 소비녀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수고스럽게도 논산까지 와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예물, 성가, 영적 예물, 수단 세 벌, 제의(꼭 아름답습니다), 옷 한 벌, 세수수건, 성모 그림 등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죄송합니다.

교우들도 이것을 보고 매우 감동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를 위하여 잘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주님 아래서 더욱 성가회를 사랑하고 성가회 위하여 기구하겠습니다.

물론 또 내일이 성모통고 침례 날이니 마음으로 성가 소비녀들하고 - 특히 착복하는 수녀와 허원하는 수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하드립니다.

1960년 논산에서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원장 수녀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요새 여기는 학교 건축1)이 다 끝났고 성당2) 역시 큰 공사는 끝났습니다. 몇 가지만 남아서 계약한 대로 한 보름 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이 하나 있는데, 색유리가 부산에 와 있지만 찾을 수 있는 허가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기구해 주세요.

천주께서 시작하실 분원 문제3)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시작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구에서 시작하는 만큼 명예문제가 달려있으니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또 수녀들은 기본적으로 분원에 적어도 둘이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만날 수 있고, 서로 설 수 있고, 서로 도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시작할 때에 주교님한테나 본당 신부한테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가는 목적은 앞으로 우리 마음대로 자선사업 시작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러나 금방 시작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한 五年間 신부한테 있고, 월급 받고, 일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좀 돈을 벌다가 형편 봐서 땅 사서 따로 자선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소비녀들 위하여 신부님이 다만 성사 주시고 영혼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선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우리 소비녀들은 온전히 본당을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에도 힘닿는 대로 신

부님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은 둘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자선사업입니다. 지금부터 五年間은 첫째 문제가 본당 신부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자선사업입니다. 五年 후에는 목적이 바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로~ 기구하자.

요새 가타리나한테(벨기에) 편지 보냈습니다. 성모승천 수녀원에 가 보라고 많이 권하였습니다.

1961년경 논산에서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그 동안 수녀님들 다 안녕하셨습니까?

추석은 재미있게 잘 지내셨습니까?

피정 강론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기구해 주시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큰 걱정입니다... 암만해도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거기 수녀원에 못 가는 것이 천주의 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피정 때에 수녀들에게 개인으로 “동서의 피안”이라는 책(중국 요왕우 기록하셨습니다)을 몇 권 사 주시어 수녀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유 보낸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하면서, 카드 같은 것 원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몇 십장 보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주소가 이 봉투 속에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로 기구하자.

논산에서 수녀들에게 쓰신 편지

아멘!

내가 시작할 때에 불란서(ASSOMPTION) 성모 승천 수녀원 식대로 성가수녀원 시작했습니다. 그 수녀들 2명씩 가난한 집에 가서 가난한 가족을 도와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하녀처럼 섬기는 일이라.

전쟁할 때에 1선, 2선, 3선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 가는 것, 이것이 1선이라. 모든 소비녀들 첫째 거기 가고자 하는 큰 원의가 있어야 됩니다. 가기 싫어하면 소비녀 정신 없습니다. 각 분원에서 차례대로, 사람 있는 대로, 날마다 적어도 2명 가야됩니다. 집에서 일하는 다른 수녀, 고아원, 양로원, 기타 이것은 2선, 3선 뿐입니다.

외인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1. 천주의 뜻, 즉 성교회의 뜻은 첫째 외인 가정을 교우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아담, 에와, 가나령족 성교회, 혼배성사, 교적).

2. 사람이 95%는 가족하고 삽니다. 수도원 안에 있는 고아원, 양로원, 유치원, 학교, 병원은 5%에 해당되는 것 뿐입니다. 종긴 좋으나 너무 적습니다. 95% 있는 곳에 가시오. 각 가족에 가서 평화, 기쁨 주시오. 도와주시오. 촛대를 감추지 말고 높이 두시오. 수도원에 사는 것은 촛대를 감추는 일입니다. 집에 가서 당신 애덕 보여 주시오. 낚시로 말고 그물로 영혼 잡으시오. 문답 가르치지 않아도 불쌍한 집에 가서 묵묵히 일하면 문답 직접 가르치는 것보

다 그 집안이나 그 동네에 효과가 더 많겠습니다.

이런 ‘정신’ 없는 수녀는 성가수녀원에(자격 없다고 봅니다) 합당치 못하니 잘 알아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수녀원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1961년 수녀들에게 쓰신 편지

아멘!

공경하올 원장 高 소비녀님
성가회의 모든 소비녀들이여

다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노비시아 소비녀와 원장의 편지를 기쁘게 잘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보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몇 사람이 허원을 하고 또, 노비시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니까? 앞으로 얼마나 일을 잘 하기로 굳게 약속했겠습니까? 우리 수도자들은 천주님하고 약속할 때에 천주를 믿고 흰 종이 위에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뭘 할지는 모릅니다. 천주 친히 그날 그날 그 종이 위에 기록하십니다. 그의 기록하신 뜻대로... 우리는 인자하신 천주를 믿고 소경처럼 그냥 약속합니다. 걱정 마시오. 천주 하시는 일은 항상 내 자신을 위하여 제일 좋은 일입니다!

부탁하신 것을 힘대로 하겠지만 - 나처럼 한국보다 더 불쌍한 나라에서 오는 다른 전교신부가 많아서 - 별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이 잘 되기 위하여 많이 기구해 주시오. 천주께서 원하시면...

벨기에 나라에 물론 金(보나벤투라 수녀), 崔(벨라도 수녀) 소비녀 보기 위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가고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다니는 중이고 환동강연을 준비하는 중이며 또 벨기에에 가려면 좀 멀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 한꺼번에 다니겠습니다.

허원하는 날은 내가 다른 약속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갈 수 있겠는지 모르니 나 없이 허원식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날 일은 아직 모릅니다. 새 신부 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지마는

1. 똑똑히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인지 기록해 주시오.
2. 미리 돈을 포 신부님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혼자 뿐입니다. 생활도 어렵습니다.

3. 한국 들어올 때에 세금이 아마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도 미리 생각하십시오.

원장 수녀 말씀이 “한국 돈으로 100,000원을 벨기에 수녀에게 주실 수 있으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돈 100,000원은 대개 10,000불입니다. 그만큼 돈이 절대로 없고 1,000,000,000을 거둘 희망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파리 주교님께 가 보았습니다. 부탁하신 것을 갖다 드렸더니 대단히 기뻐하시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보내주신 신청을 잘 받으셨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번 八月에 틀림없이 다시 천주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만 천주의 강복을 얻기 위하여 천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십시오.

오늘 벨기에 수녀에게 편지 보냅니다.

이때까지 나한테 우편으로 보내 주신 것을 하나도 못 받았습시다. 그러나 아마 오겠죠. 파리 주교님께서도 몇 가지를 받으셨으나 아직 다는 못 받았습시다.

주의 강복을 받으시오. 서로 기구합시다.

기도를 많이 청합니다. 내가 이번에 할 일은 너무나 어렵고 낙심이 큼니다. 천주의 성총 없이는 본 신부가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1962~1963년경 3월 31일 과리에서 수녀들에게 쓰신 편지

아멘!

보내주신 편지와 사진 잘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으로 속으로 기뻐으나 성가수녀들과 너무나 떨어져 있어서 속에 항상 슬픈 생각이 듭니다. “밤 낮 천주께 순명하여야 된다.” 하지만 밤 낮 나의 눈앞에 성가수녀원 나옵니다. 며칠 후에 예수승천 침례 있는데 예수께서 떠나신 다음에야 종도들이 참으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가회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마 성가회 잘 나갑니다. 예비수녀에 대해 간절히 청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만 받지 마시오. 또 공부하는 사람이라도 몇 해 동안 겸손한 책임 맡기시오. 수녀가 교만하면 아주 버립니다.

이 사진 보시오... 성가소비녀 목적입니다!

물론 예비자 가르칠 수 있고 성당에 신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회의 첫째 목적은 가난한 자 - 노동자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부인입니다(J.O.C J.O.C.F).

말은 일을 잘하기 위하여 수련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시오. 산파부터... 장사까지!

슬픔 중에 사는 사람에게 희망 - 즐거움을 주시오. 필요하다면 이런 가난한 어머니들 수녀원에 부르시고 세간, 세탁, 바느질, 기타 단체로 가르치시오.

여러분의 전교 장소는 특히 가난한 사람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하고, 불쌍한 자들하고 제일 가까운 자 되겠습니다.

하느님 성령께서 소비녀 마음 속에 점점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을 주시도록 기구합니다. 특히 이번 성령강림침례에...

5월 1일에 허원식을 참으로 잘 정하셨습니다. 성요셉 노동자 침례날! 성가 수녀의 본 목적입니다. 축하합니다!

1962년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공경하올 원장 수녀님

성가회 회원들 一同

병원에서 이번에 편지를 보내 드립니다.

일 년 전부터 좀 몸이 약해지고, 안 좋더니 드디어 이번에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진찰을 하고 보니 결과는 허리에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했습니다. 지금은 미사를 못 드리고 밖에도 못 다니고 순전히 누워만 있습니다. 의사 말이 오랫동안 그래야 할 것이라고, 한국에 다시 가려면 아직 잘 모르지만 적어도 一年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주께서 명령하셨으니 Deo Gratias! 하느님의 은총을! 여기 병원에도 수녀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누님, 동생, 조카가 여러 명 있습니다.

전부 다 힘껏 서로 사랑하며 나를 위하여 일합니다. 참으로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산에서 마지막으로 중부성사를 줄 때, “一月二十五日, 저녁 10시”에 가난하고 불쌍한 나병환자였는데 그 옆에서 부인이 끝까지 그 남편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천주께서 지금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갖다 주시는지를 생각합니다. 나 위하여 그렇게 많이 기구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천주께서 강복을 주시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다니지 못하고, 본당신부 노릇도 못하고, 아마 주교님 허락하시면 수녀원의 지도신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둘로로사 수녀와 같이 저는 지금 침대에서 기구하고 희생을 바치면서 전교합니다. 나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참습니다. 나의 성가회와 해화동, 논산 본당 위하여 기구합니다.

며칠 전, 입원하기 전에 아팠어도 벨기에까지 가서 金, 崔 소비녀를 반가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형님, 형수, 조카와 같이 가는 바람에 아무 것도 드리지 못하여 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수녀들이 나 때문에 많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요새 가끔 성가수녀들을 생각합니다. 성가수녀 위하여 기구합니다. 아!... 다들 거룩한 소비녀,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가난한 소비녀 되면 천주께서 그러한 연장으로써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겠는데... 연장은 지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자기를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소비녀 = 연장 - 소비녀가 너무나 자기 뜻대로 하면, 혹 너무나 윗사람에 대하여 비방하고 업수이 여기면 그러한 소비녀는 연장이 아니므로 주인이 그러한 연장을 못 쓰십니다. 천주 없이 혼자 일하는 수녀일 뿐입니다. 천주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멀리서..., 이 침대에서 강복을 내리기 위하여 기구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구해 주시오. 병 낫게 하는 것보다 천주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집 주소: R.P SINGER - 30 RUE NUNGESSER ER COLI, Paris 16em

병원 주소: Hopital Pasteur. Pauillon Loui Martin 205 Rue Vaugirard. Paris 15em

1962년 5월 10일 파리에서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성가 소비녀 一同

다들 안녕하십니까? 다들 열심으로 천주님 위하여 힘껏 노력하십니까?

본 신부도 힘껏(!) 일합니다. 하루에 二十시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책보고... 신공하고, 약, 밥 먹고, 자고... 지금 그것만 합니다. 천당 갈 수 있을까?...

의사 말이 내년에 또 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슬픔 중에 있습니다. 이 휴양소는 불구신부를 위한 휴양소인데... (그 전에 한국 배 신부, 또 金 신부도 여기 오셨었다고 합니다.)

산중인데 높이는 1,200미터이며 다른 동네도 없습니다. 순전히 이 병원만 있습니다. 침대는 한 百개가 있으나 사실 지금 환자는 70명 밖에 없습니다. 25명이 신부이고 25명이 신학생, 또 보통 신자도 몇 명 있습니다.

날마다 2시간 동안 핏줄 속에 “베아네스”라는 약을 한 방울씩 흘려 넣고 있으며, 날마다

“스드랩도”, 또 “레비퐁”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항상 울고 싶으니..., 항상 한국을 보고 싶으니, 나 위하여 기구해 주시오. 밤에 또 꿈에 한국을 봅니다. 천주께서 착하시니 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엠마누엘 수녀가 성모 노래 나오는 시계를 원했지만 내가 지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가소비녀회를 저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가끔 생각납니다. 신공 중에도 소비녀 위해서 강복해 달라고 합니다.

아는 여러 신부, 수녀, 교우들에게 안부 전해 주시오. 특히 장면 박사와 그 부인 마리아께도...

그들의 아들 마태오는 병원에서 여러 번 반갑게 만나 봤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서로 가끔 기구합니다. 주의 강복을 받으시오.

주소: R. P. SINGER SANA DU CLERGE

BAS-THOREN (A. M) FRANCE

불란서 산중 휴양소에서 수녀들에게 쓰신 편지

아멘!

원장 高 시몬 소비녀

며칠 전에 수녀 편지를 재미있게 잘 받아 읽어봤습니다. 모든 소비녀들과 열심히 15명 새 수련자 때문에 천주께 감사하면서 - 다들 열심히 소비녀 - 좋은 효과를 거두는 소비녀 되도록 매일 매일 기구합니다.

나는 지금 -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 실제 활동으로 전교를 못하지만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전교합니다. 매일 나의 근심, 나의 고통을 천주께 “포도주와 한가지로” 바칩니다.

여기는 외따고 높은 산중입니다. 이 옆에는 동네도 없습니다. 순전히 병원뿐입니다. 요새 또 눈이 많이 내려서 더군다나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방을 다니며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왔기에 혼자 지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지금 천주와 나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16시간 동안 누워있습니다. 사실 조금씩 낫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국가를 위하여 상이군인이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듯이 나도 천주와 영혼을 위하여 다니느라 허리를 다쳤으니 한편으로는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심판 날에 천주께 많은 공로를 드릴 수가 없으나 적어도 나의 다친 허리를 바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신 천주의 재판을 안심 중에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소비녀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성탄과 새해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서로 기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리 주교 위하여 곤란하시면 - 노주교 싸인 받고 나한테 다 보내시오.

필요한 문서... - 원하시면 물론 -

성가침례날 선거 위해 기구하겠습니다.

1962년 12월 불란서 휴양 중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마리아, 요셉 아멘!

성가소비녀회 일동

요새 소비녀들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축하편지를 보내는지 참으로 하나씩 하나씩 대답할 도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또 기구, 극기, 희생 나 위하여 천주께 바쳤는지 참으로 감동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두 다 이 편지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입니다. 나도 가끔 성가회 위하여 천주께 감사합니다. 성가수녀 아스피랑부터 원장 수녀까지 위하여 천주께 기구합니다. 새해에 모두 더욱 거룩한 소비녀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인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좋겠습니까?

성 분도께서 - 거룩한 생활의 선생인데 대답하시기를 - 성인 되는 일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 거룩한 성경책을 자세히 천천히 자주 읽기 시작해야 된다. Lectio Divina

2단계 : 거룩한 성경말씀을 자주 읽어보고 배운다. = 묵상생활 Meditatio

3단계 : 거룩한 성경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만들어야 된다. =기도생활 Oratio

4단계 : 천주께서 그 강복을 주시면 탈혼생활 Contemplatio

보통 신자들이 문답 책을 잘 읽어 외우면 벌써 2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3단계에 올라가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것만! 4단계는... 천주의 강복을 기다립니다.

요새 총회 있으니 마음으로 하나되어 있습니다. 천주의 비추임을 얻으려고 기구합니다. 당선된 사람은 교만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는 시작부터 천주의 강복 받았으나 절대로 인물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점점 낫습니다. 지금 의사가 허락하여 지팡이 가지고 날마다 한 시간동안 밖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 축복합니다. 다 천주 위하여 일하십시오. 다 예수와 같이 미소한 자까지 내립니다.

1963년 1월 불란서 휴가 중 수녀들에게 쓰신 편지

아멘!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의 대주보여. 착한 소비녀와 같이 당신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스콜라스티카 소비녀가 소비녀들의 소비녀가 되었으니 천주께 감사하나이다. 천주께서 시작과 마침이니 천주 위하여 끝까지 힘쓰시기를 믿습니다. 설립자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 책임이 없으나 아버지 마음은 암만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가 부탁하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주의 뜻대로 원장 수녀됨으로써 반드시 원장 수녀가

1. 수녀 가운데 좋은 표양 낼 의무가 있습니다. 즉, 소비녀들 가운데서 규칙을 잘 지키시

오. 소비녀하고 같이(특별한 연고 외에는) 목상, 경문, 목주, 공동신공 같이 본원, 분원에서 꼭 해주시오.

2. 겸손

교황 - 예수 성체 안에와 같이 -

공경의 표시를 받을 때마다 스콜라스티카라는 사람한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콜라스티카 소비녀 안에 감추어 계신 예수님한테 바치는 표시입니다. 성가소비녀회 역사는 순전히 예수 사랑의 역사입니다. 시작한 사람과 또 지금 결과를 보면 아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왜 천주께서 이렇게 강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겸손하게 시작했고, 겸손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원장 수녀가 겸손히 지내야 되고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겸손히 다 지내시면 성가회 항상 천주의 강복 받을 것입니다.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천주께서 스스로 주시는 은총을 받고 천주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연고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하면 모든 결과가 천주의 은총 덕택이라고 안하고 본인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녀라는 이름은 일부러 겸손 덕행 때문에 작명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주께서 다른 성총을 주시기 싫어하십니다. 천주 성총 없이 암만해도 일 안 되겠습니다.

3. 가난

소비녀들이 가난 중에 살기를 기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의회 할 때에 교부들이 가난한 덕행에 대하여 말 많이 하였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더 어렵게 살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사람들이 “수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말하면 성가회의 끝의 시작입니다. 가난하게 삶으로써 사람들이 감동되고 예수님께 나오겠습니다. 하루 바삐 모든 빛을 갚고 규칙대로 조그맣게 분원을 시작하시오.

4. 지식

힘대로 소비녀들에게 공부할 만한 시간이나 -책- 좋은 책 읽어 보도록 권하시오. 지식을 얻게 되면 목상할 때에 더욱 신앙의 생활이 탄탄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 부탁할 것 많지만 오늘 그만합니다. 앞으로 드문 드문 소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힘대로 하겠습니다. 시몬 소비녀에게 이 편지로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하시는 동안 잘 하셨습니다.

성가회는 성탄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에 예수 하늘에서 땅에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비녀들도 앞으로 더욱 예수님과 같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 중에 내리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부잣집에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공로가 더 많습니다.

항상 병원에 있으나 아마 일년동안 있겠습니다. 나 위하여 기구해 주시오. 나도 가끔 성가 소비녀 위하여 기구합니다.

1963년 1월 13일 김 스콜라스티카 수녀가

제3대 원장으로 피선되었을 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원장 수녀 편지와 연보 제57호 잘 받고 잘 읽어 매우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의사 명령하신 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다만 먹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 소비녀 편지를 잘 받았지만 비행기로 대답하지 않고(돈 관계로) 다 배로 대답합니다.(그래서 좀 늦게 답을 받겠습니다) 다들 대개 몸이 건강한 모양이고 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있으니

참으로 본 신부가 매우 기뻐하면서 천주께 항상 감사하며 기구 드립니다. 앞으로 다들 더욱 열심히 다들 점점 신비한 마음을 얻어 가지고 천주와 성모마리아, 성요셉을 사랑하며 성덕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 비녀가 나한테 뭐뭐 부탁하는데 사실 내가 각 비녀의 의향대로 도와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파리에 있어도 밖에 많이 다니지 못하고 또 병 때문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 걸어갈 수 없고, 자전거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로 다녀야되니 그것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저는 생각해야 합니다. 며칠 후에 ASSOMPTION 수녀원 본원에 가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성가수녀 위하여 몇 가지 말하고 몇 가지 불란서 책 사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편지를 못 보내니 이상하다고 생각지 마시오. 마음도 상하지 마시오. 나는 병자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항상 성가수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구합니다.

그들이 잘 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힘껏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원장 수녀도 낙심치 않고 노력하실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천주께서 이만큼 강복 주셨으니 틀림없이 성가회를 원하십니다. 당신 안배로써 성가회를 통하여 여러 영혼을 구하기를 영원히 작정하셨습니다.

서로 기구합시다.

1963년경 불란서 휴양 중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어제 말가리다 수녀 별세 소식을 듣고 매우 마음 아프고 매우 근심되었습니다. 물론 그를 위하여 미사 중에 기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살지 아니 하였으나 사실 부지런하여 열심히 천주를 위하여 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소비녀의 모범자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또 특히 기억할 것은 항상 즐겁게 웃었습니다. 공동생활에 그러한 사람 항상 꼭 필요합니다. 항상 슬픔 중에 있는 성인은 좋지 못한 성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I.P.원장 수녀도 아프다는 말 들었는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다 볼(모든 업무를 다맡아 볼) 필요가 없으니 참의원에게 몇 가지 일 온전히 부탁하시오. 다른 분원 하나도 시작하지 말고 그러나 힘껏 합당한 노비시아 시작하도록 그것만은 생각하시오.

오늘 우편국으로 몇 가지 책을 보내드립니다. 전부 다 “아숨시오” 수녀회에 관한 책입니다.

설립자 신부 “베르네” 신부 일생

설립자 수녀 “예수의 마리아 수녀” 일생

잡지, 비라, 정신 설명, 기타...

이것을 대단히 귀하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이 회를 생각하고 성가수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러 가지 책을 본원 위하여 번역하시오, 수녀원 안에서 읽어보시오, 지금 인쇄한 것 없지마는 반드시 수녀원 안에, 노비시아 안에 이 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신대로 나가시오, 내가 그것을 원하고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나와 그 수도원 위하여 부탁할 것 있으면 나한테 편지하시고 곧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좀 좋아집니다. 틀림없이 내년 1월이나 혹 2월에 감옥에서 나와 다시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 위하여 소비녀들의 기구, 희생 또 많이 청합니다. 병 때문에 매우 유감이 되어서 슬픈 날이었습니다.

다. 지금 전교회 참석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녀원에 임시 “잡랭”으로 갑니다. 아직도 말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이만 끝입니다. 여러 소비녀들에게 문안드려 주시오. 다들 즐거움 중에 천주 위하여 가난한 자들 위하여 말가리다 수녀와 같이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1963년 불란서 휴양 중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원장 소비녀와 모든 소비녀들에게

진심으로 성탄과 새해의 축하를 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의사가 드디어 한국 갈 수 있다고 승낙하였습니다. 천주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3~4개월 약 없어서 여기서 기다린 후 곧 가겠습니다. 확실히 성령강림절날에는 한국에 가있겠습니다.

2년간 마음과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다가 오늘 마침 캄캄한 굴에서 나와, 다시 나의 전교 지방에 전교 갈 수 있으니 기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주께 감사하며 본 신부 위하여 많이 기구하였던 소비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편지, 카드, 물건, 그림 기타 보내셨으니 나는 본원 위하여 루르드의 성모 노래를 하는 큰 시계를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기차 속에 있습니다. 기차 속에서 편지를 쓰기때문에 글씨를 잘 기록치 못하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리옹市에서 강경 차 야고버가 신품성사를 받으니(다른 한국 신학생 2명하고) 참례하려고 갑니다. 한국에 간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려고 작은 새끼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잘 되도록 기구하십시오. 천주 안배에 맡깁니다. 요새 파리에서 노주교, 원 주교, 하 신부 만나 한국 이야기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 비싼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그림에 도장 꼭 있어야 하고 여기서 사람들 원합니다. 아직도 이야기할 것 많으나 이만 끝냈습니다. 서로 예수 성체 안에서 가끔 기구합시다. 주의 강복을 받으시오.

1963년 12월 20일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1964년 1월 21일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요새 여러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일일이 답장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짐 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四月 七日, 말르세이유 항구에서 떠나고 五月 八日 동경에 도착합니다. 그러니 한국에는 五月 十日~12日 경에 도착할 것입니다.

큰 시계는 짐 속에 넣어 가면 너무나 불편하니 우체국으로 보낼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엠마누엘 수녀가 주소를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서 그리로 보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 주소가 좋을지 모르겠으니 하루 빨리 받을 만한 주소를 서양말로 가르쳐 주시오. 그

주소 얻은 다음에 직접 상점에 가서 사서 보내겠습니다.
성가 침례날, 성가 소비녀들을 다 생각하면서 미사 드렸습니다.
서로 기구합시다.
1964년 1월 21일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파리 2월 8일

보내 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기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돈보
스꼬 수녀도 온전히 나은 줄 믿고 기도합니다.
보내 주신 주소 역시 잘 받았습니다. 루르드의 종 큰 시계를 두 개 샀습니다. 그러나 공장
에서 한달 여유를 달라고 했으니 여기서 三月에 보내겠습니다.
四月 七日, 마르세이유 항구에서 떠나면 일본에 五月 八日에 도착할 것입니다.
한국에 가긴 가지만 아직 건강은 완전치 못합니다. 특히 손으로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없고
또 한 두 시간 동안 걸어가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전 같은 일을 못할 것 같
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아파도 가끔~ 성가수녀 위하여 기구합니다.
1964년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파리 3월 26일 성체대례

며칠 후 드디어 갑니다.
천주께 감사드리며 본 신부 위하여 기구하였던 모든 소비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에 한국에 도착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장 신부님이 나를 보고 한 달 동안 싱가포르
비낭섬에 피정 강론하러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야 한국에 도착할 것 같
습니다.
다 잘 되도록 나를 위하여 기구하여 주십시오. 특히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구의 애공을 주
십시오.
며칠 전에 루르드 시계 두 개를 가르쳐 주신 주소대로 보냈습니다.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십
시오.
이것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다음 직접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기구합시다.
1964년 불란서 휴가 중에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그 동안 천주 안배로써 원장 수녀와 모든 소비녀들 다 잘 있습니까? 지난 번 인천서 나의
자동차 찢느라고 서울 올라갔을 때, 소사에 가서 거기 소비녀들 보고 매우 기뻐하였지만 그

날 너무 더워서 많이 고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에 돌아와서 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양의 나의 본당 신부님이 그전대로 또 전교주일 위하여 팔만한 한국 물건을 더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백가지 중에 이번에는 작은 인형 50개 원하십니다. 대개 높이는 15cm나 20cm 가량의 한국 옷 입고 있는 남자 여자로. 지금은 서양 아이들이 우표 수집 대신으로 인형 수집합니다. 자기 방에 여러나라 지방의 인형을 모읍니다. 아이들이 보통 돈이 얼마 없으니까 너무 비싸면 안되겠습니다. 한 개에 백 오십원 가량이면 좋겠습니다. 속히 보내야 되니 속히 답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감동된 아버지(본당신부) 마음으로 이번 8월중 반드시 어디 나가서 신공 외에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순전히 쉬라고 명령합니다. 주의 강복을 내리시도록 매 목요일 항상 기구합니다.

연대미상, 홍산에서 쓰신 편지
아멘!

스콜라스티카 소비녀 원장 편지를 잘받고 매우 감사합니다. 장마 때문에 또 병자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있다는 말을 읽고 나도 걱정되지만 천주께 순명으로, 또 넉넉히 노력한다면 다 풀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성가회 위하여 가끔 기구합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 미사의 둘째 뜻은 항상 성가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신부는, 천주 안배로써 여기 작은 본당 아주 시골에 왔습니다. 교우가 400명이고 200명 냉담자(구호 물자 때문에 대부분 영세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신덕이 없습니다. 공소가 4개 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전히 천주 원하신 곳에 있는 것이고 안심, 평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자리를 생각할 때에 울고 싶습니다.

지금 논산 성당구내에는 날마다 아이들만 한 30명이나 옵니다. 그러니 몇 십 년 후에 논산에 영세자가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더구나 아름답고 높은 성당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당 신부 잘하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요새 이 마리아(뽀스트랑)가 며칠 동안 여기 와서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서 나의 짐이 왔다는 소식만 들으면 즉시 서울 올라가 인천까지 자동차로 짐을 실으러 가겠습니다. 그 때에 포 신부님이 승낙해주시면 소사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비밀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에 합덕 최 신부님이 오셨는데 물론 즉시 “합덕 수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신부 대답이 “큰 양반이라고... 장날에 다른 사람과 같이 보고 내까지 걸어 갈 수 없다고 다꾸시를 불러옵니다” 하였습니다. 자세히 모르니 판단 안 하지만 원장 수녀로서 조사하시고 필요하면 가난한 정신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 가난한 사람 가운데 사니, 좋은 표양 때문에 나무라시오. 천주의 강복을 받으시오.

서로 기구합시다.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35의 4
천주교회 내 성가수녀원장 귀하

(인지 날짜 : 1964년 8월 16일)

충남 논산읍 천주교

성 신부

어제 잊어 버렸는데 인형 문제입니다.

빨리 배로 부치시오.

오는 八月二十四日 동경에서 불란서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는 九月 十三日, 그 때는 좀 늦습니다.

기쁨 중에 항상 계십시오.

1964년 홍산에서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보내 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재미있게 잘 읽어보았고 매우 칭송하며 점점 더 잘하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노비시아... 본원을 지은 다음에 틀림없이 첫째로 해야 할 것이 작은 인쇄소입니다. 작은 잡지를 만들어서 자주 일반 교우들에게 수녀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알려 드리고 또 특히 일반 교우들과 수녀들이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마련할 것입니다.

교우들이 돈으로 돕기보다는 그들의 손으로 도와 주기를 청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종도들을 부르시고 전교하러 보내신 것과 같이 성가회도 애덕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교우들을 불러 애덕행실을 하라고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녀 정신이 커질 것이며 교우들에게도 그 정신을 줌으로써 본 목적을 이루며 가난한 자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최 데오필로 신부(1964년 9월 2일부터 강의 시작)가 성가회에서 교회사 강의를 맡게 된 것도 기쁩니다. 그 전에 착한 아이였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신부이리라 생각합니다.

엠마누엘 수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그 전 것을 이야기 꺼내지 마시오. 본인이 이야기하려 하면 자리를 피하십시오. 잘 쉬도록, 잘 먹도록 주의하십시오. 그에 대한 나의 애정은 변하지 않고 항상 공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비녀들에게 문안을 드려 주시오. 다 규칙을 잘 지키면서(특히 이번에 두 명씩 밖에 나가게 된다고) 좀 가난한 집이나 개인 집에 가서 손으로 일해 달라고 권하십시오.

각 수도원이 본 목적이 있어야 될텐데 성가회의 목적은 가난한 자의 소비녀 노릇입니다.

주의 강복이 많이 내리시게 천주께 기구합니다.

1964년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주여, 감사하나이다!

행복 중에 보다, 이와 같은 큰 고통 중에 더 감사하는 것은 수만 배나 기도의 아름다운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장 수녀도 천주와 예수 마리아 요셉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고통 당해도 원장 수녀는 정신이 빠지면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정인데 성가 단체가 더 큰 문제이니까 안심, 평화 중에 계시기를 굳이 부탁드립니다.

다. 당신의 탓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당신 마음 속에 상존성충 그대로 있으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 또 훈계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생각대로 이 여러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참 의원들하고도 또한 마련하십시오.

1. 신비한 방법

내일 성모승천. 엠마누엘 수녀 위하여 미사 드리겠고 같은 날에 소비녀들이 9일 신공 시작 하라고 하시오.(무슨 뜻인지는 말 할 필요가 없으나 급한 사정이라고 하시오.)

2. 끝까지, 말로 행동으로 엠마누엘 수녀를 사랑하십시오. 그 전에 성가회 때문에 너무나 노력 하시고, 걱정하시고, 지식이 부족하셨으나 소사 받 햇빛 밑에서 너무나 일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3. 글씨로 아무것도 기록하지 말고 다만 기회되는 대로 그의 큰 공로를 기억하게 하면서 각 분원장에게 말로 알려주시오. 주교님 한테도 일부러 가지 말고 기회 있을 때에 말씀하십시오.

4. 본인 엠마누엘 수녀를 의사한테 데리고 가시오.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면 당신이 의사와 함께 가서 물어보시오. 어떻게 하여야 좋을까?

5. 재단법인 엠마누엘 소비녀 도장이 필요하면 본인 몰래 그의 이름 빠지도록 마련하십시오.

6. 그의 허원을 풀어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마시오. 자꾸 무슨 핑계 가지고 미루시오. 자기가 가라고 하시오.

7.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물론 허락하십시오. 그러나 분원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그와 친하고 착한 소비녀와, 세속 가운데 같으면 수녀 옷 벗고 가라고 하시오. 어떤 때는 그래도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빌건데 규칙대로 두명씩 가야 된다. 어머니로서 좋은 표양내라고...” 기타... 밖에 나가면 노자 적금 드리며, 욕 본 다음에 돌아 올 것입니다.

8. 우리 홍산 집에 올 마음이 있다면 다른 소비녀하고 같이 올 수 있으나 사실 여기는 작은 본당이기 때문에 곤란 될 일이니 보내기 전에 많이 생각하십시오.

9. 이러한 병 생겼으니 병 낫기 위하여 수녀 옷 벗으라고 해도, 본인 위하여, 퇴원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온 다음에 죄 없는 것처럼 도로 받으시오.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각 수도원에서 가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날 천주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기쁘게 잘하도록 하시오. 고단하시면 쉬기 위해 어떤 분원에 가시오.

천주께 영광이여!

성모마리아께서 우리와 같이 아담 예와 자손이고 우리 인간가족의 한 식구가 되어서 지금 천주님 옆에 앉아 계시고 천주님 보고 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 온 인간 위하여 얼마나 기쁨입니까? 사람이 먼지일 뿐인데 그래도 천주께서 이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 어떻게 실망하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서로 기구해 봅시다.

1965년 8월 홍산에서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홍산 6월 30일

돌로로사 수녀가 보내주신 우유를 잘 받았습니다. 좋지 못한 본 신부 본명 첩례를 기억하니 매우 감사합니다.

‘좋지 못한’ 본 신부, 왜냐하면 그 신부가 성가수녀회를 나쁘게 시작한 다음에 도망가서... 소비녀들을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

글쎄... 글쎄... 이것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크게 아픕니다. 그러나 천주 대전에 나의 탓 아니고 주보되신 예수, 마리아, 요셉 나보다 더 잘 도와 줄 것입니다. 더 잘 인도할 것입니다. 소비녀들이 열심히 허원을 잘 지키기만 하면 다들 본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기구합시다.

1960년~1967년경 홍산에서 쓰신 편지

아멘!

원장 수녀가 보내 주신 카드 잘 받았습니다. 나 역시 모든 소비녀들,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1965년 새해를 맞이하여 축복의 인사를 드리며 다들 열심히 수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조금도 교섭한 적도 없고 칭찬 적도 없으며 더욱이 원의도 없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홍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 어디로 갑니까? 포항 예수 성심시녀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유 신부1) 대신 영적지도 신부를 맡으라고 갑자기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성가회 설립 이후로는 오직 성가수녀회에만 생각이 있고 포항 성심회에 갈 마음은 없는데 대구 서 대주교님2)이 특히 청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직 소비녀들은 모르겠지만, 이 소식 들을 때에 매우 섭섭할 것입니다. 나도 성가소비녀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께서 완전히 나의 마음속에 강생하시려면 천주님이 주인 노릇하셔야 합니다. 나의 뜻 말고 오직 천주의 뜻대로, 지도하신 대로 지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싫어도 갑니다. 나 위하여 많이 기구해 주시오.

그 문제에 대하여 소비녀들이 나한테 아무 것도 기록하지 말라고 해 주시오. 대전교구를 떠나 대구 대교구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가소비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성심 시녀들을 위하여 기구하며 그들을 속으로도 사랑해 주시오. 그들도 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65년 홍산에서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포항 수녀원에 가게 되었다가 丁 神父 부주교 명령으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그대로 홍산에 있습니다. 천주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부인회에서, 성당을 위하여 사도예절할 때에 신부들이

쓰는 검은 갑바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가수녀에게 청합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시작해 주시고 할 수 없으면 알려 주시오. 어디에 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돈은 걱정 마시고, 돈을 빨리 원하시면 빨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서로 기구합시다.

1965년 홍산에서 쓰신 편지

아멘!

홍산 5월 7일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 가는 것보다, 여기서 수녀 두분 정도 쉴 수 있게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오시면

1. 치수를 썰 수 있습니다.
2. 무슨 감을 쓸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3. 쉴 수도 있습니다.
4. 올 때에 나 위해서 부엌에서 쓰는 기름 두 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5. 노자는 제가 다 부담하겠으니 걱정 마십시오.
6. 여기서 구경도 하고 나의 농사가 어떤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오. 아무쪼록 나 위하여 항상 많이 기구해 주시오.

성가회에서 떨어지고, 논산에서도 떨어져 있으니 참으로 어떤 날은 꽤 어렵습니다.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1965년경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35의 4

천주교회 내 성가수녀원장 귀하

(인지 날짜 : 65년 6월 26일)

충남 부여군 홍산면 천주교

성 신부

찬미 예수, 마리아, 요셉!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소비녀들 다 무고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달 二十九日 베드로 침례날, 그 날은 강경에서 목 신부짚와 지 신부의 신품 六十주년을 기념하는 옥(玉)경축식이 있어서 제가 여기 없으니 미리 알아두십시오.

또 한가지, 여름 흰 수단 두 벌이나 세 벌을 청하고 싶습니다. 포플린 같은 것으로 혹시 서울에서 살 수 있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1965년경 홍산에서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경애하올 원장 수녀님 안녕하십니까?

요새 약한 몸이 어떠십니까? 별 말씀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편지를 잘 받았으나 즉시 대답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 동안 소비녀 피정이 있었고 또 더위가 심해서 게으른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 여름에 - 나오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으니 부끄럽습니다.

피정이 잘 되었다고 믿습니다. 지난 번 보내주신 사진을 잘 보았습니다. 동생 수녀한테 보냈습니다.

요새 수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각 수도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세속공부를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시키는 모양입니다. 예비 수녀는 수녀원의 덕택으로 무슨 졸업장이나 직업을 배운 다음에 가끔 수녀원을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영혼 공부, 육신 공부가 너무 섞여 수녀생활을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녀원 지원자에게 직업이나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지참금 대신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중세기에는 여자들이 일하는 풍습이 없었기 때문에 지참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20세기에는 지참금 대신으로 이렇게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속에서 무슨 생활 할 수 있으나, 천주께 그 생명을 바치는 지원자의 희생이 더욱 크고 깨끗하며 진실할 수 있습니다. 본회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고 20세기 정신하고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지원자들에게 직업을 배우라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습기간, 수련기간을 시작해서 순전히 종교와 제 영혼에 대하여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도원에서는 첫 허원 다음에 일년, 혹 이년 동안 신학공부(성경, 성교역사, 신학, 도덕, 예절, 기타)를 시킵니다. 또 가끔 다른 수도원과 함께 모여서 가르치기도 합니다(선생 부족관계).

요새 과히 덤지 않으면 나의 자동차 타고 한 삼 사일 동안 원장 수녀님과 혹 다른 수녀하고 여러 분원에 가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하고 운전사하고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일, 혹 나흘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소비녀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요. 서로~ 항상 기구합시다.

1963년~1967년경 9월 1일

홍산에서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홍산 4월 22일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한 편으로는 대단히 기쁜 소식이지만 한 편으로는 슬픔입니다.

종신 허원 7명, 첫 서원자 9명, 착복자 4명1)이라니 진심으로 천주께 감사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주일에 맞추어 돌아와야 하니 12시 45분 차로 돌아 올 예정입니다.

엠마누엘 수녀가 이렇게 퇴원2)하다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과히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오. 왜 그러냐하면 그 수녀 정신이 몇 해 전부터 이상해져서 강제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천주 대전에 잘못하는 것 없으니까 안심하시오.

로사리오 수녀3)에 대해서는 내가 첫째로 잘못했습니다. 영세한 다음에 너무 빨리 수녀원에 보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밀라 수녀한테 걱정말라고 전해 주시오. 여기서 한 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29일 서울 올라가서 만나 보겠지만 30일 점심 전에 떠나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안심하세요.

기뻐하십시오.

명령입니다.

다 나의 책임입니다.

1966년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오늘 편지를 받고 매우 놀랐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약하니 유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겸손히 보속으로 참아야 되고 천주께 울면서 용서 얻기 위하여 기구할 뿐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더욱 노비시아에서나 분원에서 규칙에 따르는 좋은 결심을 하도록 하시오. 로사리아 소비녀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 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 보내실 때는(자기가 원해서) 혼자 보내지 마시오. 홍산 가는 길은 운양을 지나갑니다. 사실 여기 오면 나는 책망할 수 밖에 없고 나무라며 통회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다른 신부들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나한테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주 원한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되도록 비밀로 하시며 합당한 곳에 보내시오. 원장 수녀에게는 이런 사정이 돈을 빚진 것보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다만 수녀들이 더욱 유식하게 초성한 마음을 가지고 희생 생활을 하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본 신부도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66년경 10월 22일 홍산에서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수녀원장 귀하

우리 본당에서 구 교우 자녀가 - 소신학생 누나 윤미순 데레사 - 성가수녀원에 매우 입원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보고 알아보겠다고 하니 소개된 이 편지를 보내 드립니다.

데레사1)는 1945년 9월 27일생, 1945년 영세, 1957년 견진. 성격은 순하고 열심히 합니다. 몸건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받아주시면 천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67년 홍산에서 김 스킨라스티카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어제 십자가 요왕 수녀님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보내 주신 통조림 잘 받았고 매우 감사합니다.

말을 들어보니 요새 여러 가지 걱정2)이 있다고 하시니 나도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다 잘 풀어지기 위해 기구합니다.

베아트릭스 수녀 또 큰 일 보러 보냈다고 하셨지만 여기 또 젊은 姜 신부도 며칠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지요...

내가 서양에 어제 편지했습니다. 서울 성가수녀 고아원 위하여, 원장 고 시몬 수녀 위하여 우유 간스메 2,000통 얻었습니다. 서양에서 곧 올텐데 여러 가지 문서를 받기만 하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산말고 인천 항구로 보내 달라고 했지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기구해 주시오.

내가 빚이 12,190원 있는데 돈은 여기 있지만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지난 번에 잊어 버렸습니다. 십자가 요왕 수녀가 너무나 갑자기 갔기 때문에...

안녕히 계십시오. 서로 기구하자.

1968년 홍산에서

제4대 고 시몬 원장수녀(1968~1971)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마리아, 요셉!

친애하는 소비녀들에게

경애하올 원장 수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무사히 여기 온 다음에 즉시 소비녀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야 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 가지 신부들 회의가 있었고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야 감사의 말씀을 보내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은경축 행사가 있어서 나 위하여, 또 동생 수녀 위하여 마련한 잔치와 선물, 여러 가지 말씀, 기타 등등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비녀들 일동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너무나 잘 해주신 덕분에 내가 여기 돌아와서는 교만한 마음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녀원 시작할 때에 내가 조금 관계가 있었으나 이렇게 크게 발전한 것은 순전히 수녀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수녀들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내 동생의 편지를 벌써 받아보았는데 역시 매우 놀라고 천주께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녀원에 들어간 아스피랑 尹 데레사(미순)짚가 여기 왔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닌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군대 가고 동생은 대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녀에게 필요한 것 마련할 수 있도록 10,000원을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마음이 착하니 착한 수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란서에서 나의 본당 신부한테 편지가 왔는데, 수녀들이 작년에 보낸 것을 다 잘 받았고 전교주일날 다 팔았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작년처럼 전달 받게 보내지 말고 속히 보내달라고 하십니다.

인형 25개, 나무로 만든 한국 부부인형 40개, 쓸모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제품: 재떨이, 왕골로 만든 냄비 받침, 식탁보 등등

한국우표 100매: 한 매 대개 20장 그림은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편지 속에 나의 본당 신부의 주소를 보내니 작년처럼 쓰시고 비용은 청구서로 내게 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녀원의 금경축까지 네 배나 더 노력하십시오!1)

천주께서 내가 홍산에 있는 것을 원하시니 - 홍산본당 위하여 많이 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69년 1월 홍산에서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무사히 잘 돌아가셨습니까?

어제 대전에 가서 참의원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할 때에 사실 성가수녀들이 성 신부를 보내달라고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황 주교님이 여전히 반대하셨고, 파리외방전교 지구장도 반대하셨습니다.

황 주교님은 교구에서 신부가 부족하고, 빈 성당이 있다고 하시면서... 崔 신부님2)은 金 추기경3)과 수원 주교님4)과 계약해야 된다고....

十月에 한국 주교와 전교 신부회 각 지구장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계약, 일 할 내용, 생활비, 치료, 장례, 기타) 토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섭섭히 생각하지 마시오. 천주의 양이니 다른 신부가 오시도록 교섭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녀원 위하여 나는 큰 손해일 것입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천주께 순명하자.

1969년경 고 시몬 원장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공경하올 高 수녀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수녀원에 가는 것을 매일 바라고 바랍니다. 아직까지 주교님이 공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나가게 되면 아마 홍산에 다른 신부가 안 올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인 16일에 신품성사가 있는데 그때에 이동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면 즉시 편지로서 알려 드리겠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金 추기경님과 黃 주교님의 편에서는 아무 것도 어려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파리외방전교 편입니다. 지구장 崔 신부가 확실한 계약을 원합니다.

그 계약은

1. 나는 항상 대전교구 신부이고
2. 황 주교님은 김 주교님에게 3년 동안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3. 김 추기경이 승낙하시고 모든 직분을 하시겠다고
4. 3년 지낸 다음에 다시 3년 계약, 또 다시 3년... 추기경님하고는 다 된 모양인데...
황 주교님과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崔 신부님은 1월 성가침례부터만 원하십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골치 아픕니다.
오는 주일에 편지를 보내겠으니 기다려 주시고 또 기구해 주시오.
여회장님은 자기 짐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때에 수녀 세 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69년 홍산에서 고 시몬 원장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홍산 10월 25일

며칠 후 시몬 본명침례를 맞이하여 미리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고 시몬 수녀 무거운 책임이 다 잘 되도록 기구하겠습니다. 주일 때문에 내가 서울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 27일 동경에 있는 나의 동생 수녀가 15일간 나한테 오기로 되었습니다.
(12월 27일 - 1월 11일) 그때 미아리서 어렵지만 2~3일간 따뜻한 방 준비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녀 일본서 건강하며 결과를 많이 거둡니다. 모든 소비녀들에게 문안 드린다고, 이번 착복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보내주신 카드 50개 잘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1969년 홍산에서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공경하올 高 원장

어제 무사히 朴 안나1) 수녀가 도착했습니다. 무한히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金 십자가요왕2) 수녀가 떠날 때에 朴 마리오왕 수녀는 많이 울었습니다. 뭐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도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생각에는 아마 자기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수녀들은 여기서 별 재미가 없습니다. 교우들과 예비자들을 만나려면 멀리 가야 되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안 오고, 잘 안 배웁니다. 그나마 왔던 사람은 그 다음에 다 이사갑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게 되면 수녀들도 일을 위해서나 영혼을 위해서 여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가수녀원에 가는 것은 참으로 기쁩니다. 힘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고 몸 건강도(신장과...) 좋지 못해서 오히려 수녀들 위하여 걱정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본국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천주의 의향대로 하겠습니다.

서로 기구합시다.

1969년 홍산에서 고 시몬 원장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찬미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소비녀들에게(一同)

어제 본 신부가 소비녀들을 보려고 갔더니 마침 피정 강론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섭섭히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요새 많이 모여있으니 한 가지라도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요새 성가 철통지냈습니다. 너희들이 성가의 소비녀라 100%라고 합니다.

소비녀라는 말은 성모 어머니 말씀을 번역한 말입니다. Ancilla Domini 주의 종(소비녀)이 여기 대령하오니... 그러니까 일반 수녀들은 성모의 겸손을 따라서 자기가 큰 양반이 아니고 오직, 하녀, 소비녀일 뿐이라고 마음 속부터 꼭 그런 생각 있어야 된다고 원합니다. “나는 수녀님”이다, 절대로 그런 정신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소비녀, 가난한 자의 하녀”라고 하시오. 서로 ‘소비녀’로 부르시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시도록 해 주시오. 이것이 우스운 것도 아니고 망신도 아닙니다. 성가의 소비녀의 본 정신입니다. 듣기나 하기나 싫어한다면 본원의 정신과 떨어져 있으니 차라리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소비녀’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이고 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시다면 윗사람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좋은 일을 원하지 말고 성가의 주인인 예수(즉 총원장이나 혹은 분원장이) 시키는 것만 원하세요. 부지런하시다면 규칙 신공 다한 다음에 시간 잊지 않고 꼭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시오. 좋은 소비녀는 박학한 사람이 아니고 부지런하고 순명하는 소비녀입니다. 노비시아부터 일해야 됩니다. 노비스 된 사람들은 꼭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공하고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성가의 노비스는 다른 소비녀와 같이 신공 바쳐야 되고 영혼 위하여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몇 가지 공부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특히 노비시아 할 때에 ‘소비녀의 참된 정신 얻으려고’ 반드시 두 세 시간 동안 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것도 소비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규칙입니다. 노비시아 할 때에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거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성가수녀원 본 정신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니 차라리 다른 수녀원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러한 수녀는 소비녀가 아니고 수녀님일 뿐입니다.

원장 수녀님이 노비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킬 수는 없지만 몇 시간 동안 시킬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적어도 하루 자기가 먹을 것 그 정도로 돈 벌어야 됩니다. 물론 소비녀들은 속으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자주 여러 가지 신공 꼭 해야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소비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그 정신을 얻기 위하여 일하시오.

앞으로 성가수녀들이 여러 가지 자선사업 맡을 것인데 그러나 그 자선사업은 애공보다 소비녀들의 손으로 해야됩니다. 착한 소비녀는 또 침묵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이야기한다면 부지런한 소비녀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소비녀의 일에 대하여 또 방해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으로 다들 착한 소비녀 되기를 원하고 기구합니다. 이것 때문에만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주의 강복을 받으시오. 피정 끝에 좋은 결심하시오.

연대 미상, 수녀들에게 쓰신 편지
찬미 예수!

가난한 자한테 가는 모든 소비녀들에게...

여러 곳에서 나의 소비녀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 주러 간다는 소식을 재미있게 듣고 본 신부가 매우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이 기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 예수님께서 마태오 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 진실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미소한 형제 중에 하나에게 베풀 때마다 곧 내게 베풀 셈이니라” 또한 “너희 중에 높은 자는 낮은 자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인과 같이 되어야 할지니라”(루가 22,26).
2. 이런 불쌍한 사람을 도와 드릴 때에 구경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췌 그 사람들은 아마 처음으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구경하는 것입니다.
3. 예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닦아 주시느라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4. 거름... 똥, 기타 닦을 때에 재미 없지만 ...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닦아 주실 때에 더욱 어렵지 아니하셨습니까?
5. (애덕의 열심은 천주께서만 아시니 빼놓고) 외면으로 보면 유치원을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드리는 것이 더욱 급하고 더욱 큰 일이고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며 더욱 조성한 일 될 수 있고 더욱 공로가 많을 것입니다.
6. 그 정신을 얻기 위하여 노비시아 수녀들은 어른 수녀 한 명씩과 같이 가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각 분원의 당가 소비녀들은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머물고 전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에 가서 전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역시 직접 다니셨고 고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계시지 않고 머물 돌 베크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소비녀들도 “가시오.”

“성가회” 세속과 같이 “성가 주식회사” 아니다.

“성가회” 성가의 소비녀입니다. 즉 예수, 마리아,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단체회입니다. 그 목적을 잊지 맙시다.

연대 미상, 수녀들에게 쓰신 편지

아멘. 알렐루야!

어제 돌로로사 소비녀 편지를 잘 받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활 축하의 말씀에 대하여도 많이 감사합니다. 물론 노비시아 책임은 큰 책임인데, 그러니 순명으로 하고 힘대로 하시면 틀림없이 천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집이 좁아서 큰 걱정이지만

- 1) 잘 기구하며
- 2) 소비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 3) 성녀 되도록 노력하며
- 4) 일도 잘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다 천주 책임인데 다 잘 될 것입니다.

성교가 곤란 중에 많이 굳어졌습니다. 성가회도 고통 중에 커지겠습니다. 커지는 것은 집, 벽돌, 사업 그것만이 아닙니다. 커지는 것은 수녀 속 정신, 성녀 정신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집에서만 일하고 자선사업 한다면 부족합니다. 또한 예수와 같이 밖에 나가 불쌍한 자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 방문하고 일하고 돌보아 드려야 됩니다. 노비시아에 있는 수녀들은 1년 동안 물론 성교 규칙대로 집에서만 연구하고, 그러나 제2년에 실제로 2명씩 그 집에 가서 세탁과 아이들 돌보고 기타 애덕을 시키신대로 한다면 좋겠습니다. 소비녀들에게 마음 속에 불쌍한 자에 대하여 큰 사랑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은 당신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생활에 대하여 너무나 곤란하니 영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녀들은 문답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이 천주를 공경할 시간이 있게 물질적으로, 손으로 도와주세요. 체면, 세속 체면 생각하지 말고 애덕만 생각하시오. 말할 것 많으나 이만 그칩니다.

김 돌로로사1) 수녀에게 쓰신 편지2)들

아멘!

돌로로사 소비녀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노비시아 일동 영신예물도 잘 받고, 로사리아3) 카드도 잘 받고 전부 다 감사합니다.

여기 새 성당4) 기초공사 다 끝났습니다. 나도 진심으로 성가 소비녀들에게 새해의 천주 강복, 영혼 강복, 육신 강복 기구합니다. 요새 외국 우표 많이 모았는데 기회 있는 대로 보내겠습니다.

서로 기구합시다.

1961년 김 돌로로사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김 돌로로사 수녀1)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병이 그렇게 많이 없어지니 다시 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 참으로 기쁘고 천주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소비녀들은 자주 나 위하여 기구 하니까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새 교황한테 큰 기부를 받아서 아마 금년에 새 성당2)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세! 만세! 지금 나와 함께 천주께 감사해 주시오.

수녀님이 자꾸 나한테 성가회 목적이 무엇이나고 묻는데 규칙, 제일 규칙 다시 읽어 보시오. 천주 강생 계속하는 것, 마치 우리 주 예수께서 많이 떨어지고 우리 인간까지 강생하셨으니 성가소비녀들도 예수를 따라서 강생해야 됩니다. 내리면 됩니다. 윗사람, 부자들 쳐다보지 말고 아랫사람, 불쌍한 사람에게까지 내려가 주시고 그들의 구속을 완성하도록 노력하시오. 이것이 큰 프로그램 아닙니까? 내리는 정신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미소한 자들을 사랑하시오.

그 정신만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하시오. 나는 참으로 소비녀들의 큰 수도원, 큰 사업의 욕심, 원하지 않습니다.

소비녀회의 본 침례는 성가1)라고 하지마는 영신적 본 침례는 예수 성탄입니다. 당신들도 내리시오. 내리시오. 강생하시오.

모든 소비녀들에게 특히 나의 정 막달레나2)에게 문안해 주시오. 또 금년에 다같이 말로, 행실로 기쁘게 천주를 찬송하면서 열심히 일합시다. 서로 기구하자.

1961년 김 돌로로사 수녀에게 쓰신 편지

본명 돌로로사, 즉 통고 - 고통 있으면 꼭 맞습니다. 기뻐하시오.

아멘!

이번에 김 돌로로사 소비녀와 명 마지아 소비녀의 편지를 받고 오는 11월 21일 종신허원하기로 되었으니 7명째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또한 예수, 마리아, 요셉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다 끊어버림으로써 참된 자유 얻게 되고 참된 재산을, 즉 천주를 얻게 됩니다.

청빈 허원으로써 밖의 재산, 정결 허원으로써 본 육신 재산, 순명 허원으로써 속의 마음 재산까지(지력과 의지) 다 바치셨으니 지금은 온전히 천주의 것이 되었으니 세속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큰 기쁨, 큰 영광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이 바친 것을 그 후에 다시 달라고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만 예수 말씀대로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디 가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일 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본 뜻 아니고 천주의 본 뜻만 원한다.」 다 천주께 바쳤으니 앞날 걱정 마시오, 다 천주께서 그날 그날 알려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요. 이번에 허원식에 못 가겠습니다. 혼자 40개 공소를 보는 중이고 또 새 성당 기초 공사하는 중입니다.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틀림없이 천주 원하시는 일이니까 아까운 생각 없이 순명하여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을 위하여 미사 성제를 드렸습니다. 걱정 많이 있는 본 신부 위하여도 가끔 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복을 받으시오.

1958년 제4회 종신서원자들에게 쓰신 편지

아멘!

편지와 영신예물 다 잘 받아보니 기뻐하며 매우 감사합니다. 소비녀들도 영혼 육신 건강하고 예수 마리아 요셉을 생각하여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 보니 대단히 좋습니다. 계속하시오. 좀~ 더 잘 하시오. 일 더 많이 하려면 첫째로 열심이 있어야 되니 아침묵상, 영성체, 후송, 성경공부 유식하게 잘하시오. 둘째 수도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힘이 부족하니 여러 명 합한다면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합한다면 불가피하게 머리가 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책임 소비녀가 천주 대전에 잘 생각해서 동료 소비녀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에 잘 정하여야 됩니다. 작정한 다음에 각 소비녀들은 원망 없이 순명 해야 됩니다. 억지로 일한다면 천주께서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수도생활 - 참 필요합니다. -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 드리고, 서로 공경하며, 서로 규칙 잘 지키도록 권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도원 안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주께서 얼마나 강복 주시겠습니까?

나는 소비녀들에게 가 볼 수 없으나 마음으로 가끔 생각합니다. 천주께 부탁드립니다. 각 수도원 설립자는 대개 항상 성인인데 나만 마귀 같으니까 나 위하여 항상 많이 기구해 주시오.

주의 강복이 내리길 빕니다.

아멘!

로사리아 편지와 돌로로사 소비녀의 편지도 잘 받았습니다. 같이 또 답장 보내 드립니다. 소비녀들 다 안녕하십니까? 천주사업, 구속 사업에 다 부지런히 일 잘하는 중입니까?

7월 2일 10명 소비녀가 허원 한다는 소식 듣고 이것 또 참 기쁜 소식입니다. 치명하신 공신부와 이 요셉 신부도 또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고, 천주님 옆에서 많은 성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성가회는 소비녀들 열심히는 대로 점점 천주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많이 있도록 크게 다들 노력하십시오.

열심한 소비녀들은 누구십니까? 물론 먼저 천주 십계를 다 지키고(이것도 일반 교우 본분이니 더구나 수도자의 본분입니다), 세 가지 허원 정결, 가난, 순명, 온전히 지키는 소비녀입니다. 내 생각에는 순명이 제일 큰 허원이니, 특히 순명 할 마음 있도록 첫째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대단히 가난하게 살으셨고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극히 가난하게 살고 있고, 소비녀들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하고 살게되니 어떻게 재산에 대하여 욕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녀들 중에 실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나 욕심부리며 부자처럼 지낸 수녀가 많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든지, 필요하지 않은 것 원장한테 달라고 하든지, 어려운 것을 가난한 자와 같이 참지 않고 원망하든지 기타 다 가난 허원 거스리는 죄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에 허원할 소비녀들에게 가난 허원 부탁드립니다. 노비시아 때도 허원하기 전에 날마다 수도원 위하여나, 가난한 자들 위하여 적어도 날마다 2시간씩 일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또 살림 가사 일 외에 할 일입니다. 소비녀 이름도 일하는 하녀 뜻이니 소비녀 정신 억지로라도 얻으려고 일하는 것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때에도 (자기 마음은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묵묵히 일해야 합니다. 노는 시간 있을 때에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때에 분심 뿐이고, 애덕 거스리는 죄도 가끔 범하게 되는 것, 암만 생각해도 완전치 못합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목적은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아니고 오직 천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옵니다. 새로 오는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옳지, 그렇지 아니하면 수도원 안에 항상 불평이 많겠습니다.

만일 규칙이 합당치 못한다면 혹은 나갈 수 있고, 혹은 총회 할 때에 권리 있는 사람만 조금씩 고칠 수 있습니다.

허원을 할 사람은 2개월 열심히 잘 살고, 잘 순명하고 동생들한테 바른 표양을 꼭 보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기구합시다.

1958년 김 돌로로사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서울 2월 9일

경애하올 프란치스카 수녀쨌!

나한테 당신에 대하여 보내주신 소식, 편지를 잘 받고 매우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요새 몸이 건강치 못하여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혈압은 210!! 잘 걸어다
니지 못하고 정신도 없어서 강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녀들의 기구하는 덕택으
로 날마다 미사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기뻐하라 소비녀

- 1) 만일 너를 몰라주고,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도 기뻐하라.
- 2) 네 정신과 육신이 못생겨도 기뻐하라.
- 3) 만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반대해도 기뻐하라.
- 4) 만일 네 뜻이 정해지지 않아도 기뻐하라.
- 5) 만일 너를 쓰지 않아도 기뻐하라.
- 6) 만일 너를 말쑤로 두어도 기뻐하라.
- 7) 만일 너를 한번도 찬양하지 않아도 기뻐하라.
- 8) 만일 너를 믿어주지 않아도 기뻐하라.
- 9) 만일 너를 모든 사람보다 중히 여기지 않아도 기뻐하라.
- 10) 만일 네게 천한 일을 시켜도 기뻐하라.

성가 수녀 십계

주님의 강복을 받으시오.

부지런히 영어 잘 배우시오.

묵상 시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말씀 하십시오.

1982년 윤 프란치스카 수녀에게 쓰신 편지

아멘!

성가회 소비녀는 - 예수처럼 - 봉사의 박사입니다.

둘쨌이 함께 안녕하시다는 소식을 받고 매우 기뻐합니다. 나도 - 베아드릭스 수녀도 다 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겨울이 가까워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금 양로원을 크게 짓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의 큰 일은 다 끝났고 내부에는 아직도 일할
것 많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자들이 별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와 보면 거짓말
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자들만이 준비해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 성가 수녀원 만세!
만세!

지난 11월 1일 지원자 15명이 청원자가 되었습니다.

15명 그 만큼 처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우 기뻐합니다.

토마스 수녀는 몸이 더 불편하시기 때문에 한달 가량 집에 갇습니다. 안동 부주교인 구 신부는 지금 나처럼 복자 수녀원에 지도신부입니다.

그러나 일년 동안만입니다.

서로 가끔 만나고 하는데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열심히 잘 지내시오... 여러 영혼에게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 이런 공부 필요합니다.

서로 기구합시다.

1976년 김 올리바 수녀와 윤 노엘라 수녀에게 쓰신 편지

각주

원 라리보 주교(Larribeau, Adrien joseph 1883-1974). 서울교구의 제8대 교구장. 대전교구 초대교구장. 한국명 원형근.

우리 수도회는 당시 파리의 'Infancia'에서 보내는 제3국의 어린이들(고아들, 유치원생들)을 위한 원조를 받고 있었다. 소비녀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딱지 인형을 만들어 불란서 파리 주교님께 보냈는데 그 중개 역할을 성신부님께서 해주셨다. 매년 받던 'Infancia'의 원조는 1980년대에 더 어려운 3국을 원조하기 위해 중단되었다(이 레오날드 수녀 증언. 2000년 9월).

포 신부님: 파리 외방 전교회에서 1959~1985년까지 당가 직책을 맡음.

무슨 뜻인지 모름. 원본대로 실었음.

1) 1959년 요셉병원이 (약현 성당과 함께 우리 수도회가 운영하던 것을 샬트르 바오로 회에서 인수) 폐쇄된 일을 말한다.

2)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 1955년 약현 성당을 인수 받았다.

논산 성당은 1960년 2월, 착공에 들어가 1961년 10월경 준공되었다.

성 신부님 은경축에 서울의 소비녀들이 논산으로 내려가 축하드렸던 것에 대한 감사 인사이다.

1) 대건 중고등학교.

2) 대전교구 논산 성당, 현 부창동 성당.

3) 어느 분원의 신설에 관한 일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신설된 분원은 다음과 같다.

① 1961년 7월 12일 전주 중앙 본당 신설.

② 7월 24일 수원 본당 및 소화 초등학교 신설.

③ 8월 30일 대구 대봉동 본당 신설.

김 보나벤투라 수녀의 수도명 이전의 본명. 1959년 9월 9일 벨지움으로 유학가서 1963년 5월 13일 귀국.

무슨 뜻인지 모름. 원본대로 썼음.

김 보나벤투라 수녀는 1959년 9월 9일 벨지움으로 유학을 떠나 1963년 5월 13일 귀국하였고, 최 벨라도 수녀는 1960년 7월 18일 벨지움으로 유학을 떠나 1963년 12월에 귀국하였다.

1960년 7월 1일부터 약현 성당 전교 수녀로 소임하였다.

당시 벨기에 유학 중인 김 보나벤투라, 최 벨라도 수녀를 말한다.

1963년 9월 3일 선종.

무슨 뜻인지 모르나 원본에 있는 대로 실었음.

당시 부원장 수녀였던 유 돈보스코 수녀는 1964년 1월 30일 폐수술을 했고 1965년 8월 다시 재수술을 했다.

성 신부는 불란서 휴양(1962년 2월~1964년 6월)후 귀국하여 1964년 6월 23일자로 홍산 본당에 부임.

1) 유기홍((Louis)신부는 파리의방 전교회 소속으로 예수성심시녀회의 지도 신부로 있다가 1964년 11월 22일 선종하였다.

2) 서정길 주교(1955년 7월부터 대구 대교구장).

논산 성당 주임 신부로 계실 때 월요일 마다 자전거를 타고 강경 본당의 목 베르몽 신부님께 가서 고해 성사를 보셨다.

1) 1966년 4월 30일 종신서원식과 첫서원식이 있었다.

2) 1966년 4월 16일 퇴원하여 1980년 2월 17일 재입회.

3) 성 신부님이 보내신 김 로사리아로 첫서원 후 퇴원하였다.

성 신부님께서 보낸 지원자.

1) 윤미순 데레사, 현재 윤 쯤마 수녀를 말한다.

2) 월곡동 병원(현 복지 병원)이 부도 직전에 있었다.

김 베아트릭스 수녀는 1967년 첫서원 후 제천 본당에 파견되었다가 갑작스레 1968년 부산 오륜대 피정의 집 주방 소임을 맡았다.

성가소비녀회 창립 25주년(1969년 1월 10일).

현재 윤 쯤마 수녀로서 1969년 휴가 때이다.

1) 성가소비녀회 창립 25주년(1969년 1월 10일).

2) 파리의방 전교회 지부장.

3) 김수환 추기경.

4) 윤공희 주교(1963-1973년 수원교구 주교 재직)는 1967년 3월부터 1968년까지 1년간 노기남 대주교의 대리로서 서울 교구장에 재직하였다.

1) 1969년 11월 1일자로 홍산 본당 소임.

2) 1969년 11월 1일 홍산 소임 마침.

성 신부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돌로로사 수녀님께도 하셨음(돌로로사 수녀 증언. 2000. 10. 1).

1) 1957년 12월 - 1961년까지 수련장을 하였다(1959년부터 1961년까지는 명 마리아 수녀님이 대리).

2) 김 돌로로사 수녀님이 1953년 허원하시고 54년도쯤 남곡리 소임을 하실 때 신부님께 편지를 드렸더니, “애들 하나 하나를 감실로 생각하시오” 라고 편지를 주셨다.

3) 성 신부님께서 논산에서 보낸 지원자. 허원하고 퇴원하였다.

4) 논산의 부창동 성당.

1) 수녀원 기록에 따르면 김 돌로로사 수녀는 1957년~1959년까지 수련장으로 재직하였는데 59년 6월 5일에 폐결핵 진단을 받아 이후 명 마리아 수녀가 수련장 대리직으로 김 돌로로사 수녀를 보조했다.

2) 성당은 1964년 10월에 준공되었다.

1) 성가정 축일을 의미한다.

2) 현재 정 다니엘 수녀.

1958년 제4회 종신서원자 : 명 마지아 수녀, 김 돌로로사 수녀, 박 뿌리나 수녀, 최 다두 수녀, 권 테레사 수녀, 송 젤뚜르다 수녀, 김 안또니오 수녀.

1982년 당시 윤 프란치스카 수녀는 필리핀 E.A.P.I 사목 연수를 받기 위해 영국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었다.

김 올리바 수녀는 1976년 당시 첫서원 후 안동 상지전문대 유아교육과에, 윤 노엘라 수녀는 경영과에 재학하고 있었다. 2000년 7월 27일에 인수.